

# 신문론 사람님

P R E S S   A R B I T R A T I O N   C O M M I S S I O N

**05**2016 + May  
Vol. 191

작게 돌아난 파란 새싹이  
사람들에게 희망과  
즐거움을 주는  
푸르른 녹음이 되어  
세상을 물들여갑니다.  
언론과 국민을 이어주는  
언론중재위원회,  
항상 곁에서 여러분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행복을 전해주는 희망의  
다리가 되겠습니다.





미혼모자사실 애란원 강영실 원장님

##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 바로 가족입니다.

쉽지 않은 길이지만, 소중한 아이를 지키기 위해 홀로 부모 되기를 선택하는 용감한 엄마들이 있습니다.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미혼 엄마들의 아픈 마음까지도 따뜻하게 감싸 안아주고 싶다는 강영실 원장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용기를 낸 엄마들이기에 더욱 애뜻하고 마음이 쓰입니다.  
가족의 소중한 가치를 믿기에, 언제나 한걸음 앞서 묵묵히 걸으며  
사랑으로 미혼 한부모가족과 동행하는 강영실 원장님께 감사의 박수를 보냅니다.

언론중재위원회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희 언론중재위원회는 국민과 언론을 이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로 인한 국민과 언론 간 분쟁을 조정과 중재를 통해 해결하는 곳입니다.

# 언론중재위원회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 언론피해 구제 상담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조정·중재신청 절차와 종합적 피해구제 방안을 무료로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 언론분쟁의 조정·중재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가 정정·반론·추후 보도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조정·중재를 통해 분쟁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시정권고

언론보도로 인한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 법익 침해사항을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언론사에 서면으로 시정을 권고합니다.



## 선거기사 심의

공직선거법에 따라 각종 선거가 실시될 때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에 보도된 선거기사의 공정성 여부를 심의합니다.



## 언론중재아카데미 교육프로그램

언론피해 구제 및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분쟁해결 전문연수 과정과 청소년 언론중재 스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www.pac.or.kr](http://www.pac.or.kr)

언론중재Eye-Net [people.pac.or.kr](http://people.pac.or.kr)

블로그 [pacblog.kr](http://pacblog.kr)

페이스북 [facebook.com/pacnews](http://facebook.com/pacnews)

# Contents

2016 May Vol.191

## 04 인터뷰

주철환 / 아주대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 06 미디어트렌드

VR 저널리즘: '예언자 일보'가 인간 세상에도 구현되다

## 07 언론중재법 NOW

대법원 판결은 무죄, 여론 재판은 유죄

## 08 문화토픽

모차르트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 09 세상읽기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다

## 10 인증노트

촬영을 거절할 권리, 공표를 거절할 권리

## 11 언론법 이모저모

기업 간 광고전쟁과 언론사의 책임

## 12 여행수첩

스페인 그라나다 여행

## 14 위원회 NEWS

## 15 조정중재 사례 / 『4인론』사람』100자평

발행인 박용상

편집인 권우동

발행일 2016년 5월 1일

등록 2009년 12월 7일 서울중, 라00325

발행처 언론중재위원회(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빌딩 15층)

TEL 02-397-3114 FAX 02-397-3069

구독신청 홍보팀 TEL 02-397-3082-4

편집·디자인 한라에드플러스(주) TEL 031-247-5141

※ 본지는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한 것입니다.

※ 저작권법에 따라 본지 기사의 무단 복제와 전재 및 상업적 이용을 금합니다.

## 지금까지 제가 하고 싶고 잘할 수 있는 일을 즐겁게 해 왔습니다



동북고등학교 국어교사  
MBC PD  
이화여대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  
OBS 경인TV 대표이사 사장  
JTBC 대PD  
(현) 아주대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올해 나이 62살  
스티브 잡스와 같은 해에  
태어났고 빌 게이츠와도  
동갑이다.  
나이에 상관없이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다는 사실에  
기분 좋고 미래의 꿈을  
가진 20대와 함께하는  
지금 가장 행복하다는  
“영원한 PD” 주철환  
교수를 만났다.



**Q. PD, CEO, 작가, 교수, 싱어송라이터 등 국민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어떤 직업에서 가장 행복을 느끼셨습니까?**

**A.** 저는 지금이 가장 행복합니다. 호기심이 많아 끊임없이 다양한 길을 걸어온 덕분에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저의 다양한 경력이 종합된 지금이 좋습니다. 직업적으로는 PD로서 가장 오래 일했는데 MBC PD 17년, OBS 경인TV 사장을 2년, JTBC 대PD 4년을 합하면 총 20년 넘게 PD로 있었습니다. 현재는 아주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데, 미래의 꿈을 가진 젊은이와 함께할 수 있어 행복합니다.

**Q. 플랫폼의 진화와 함께 콘텐츠가 가장 중요한 시대입니다. 문화콘텐츠학과에서 가장 핵심을 두고 가르치는 내용은 어떤 부분인가요?**

**A.** 얼마 전 박근혜 대통령도 <태양의 후예>에 출연한 배우 송중기를 만난 자리에서 문화 콘텐츠의 중요성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저도 방송 현장 경험과 방송 경영 실무를 살려 한류와 콘텐츠를 이끌어 가는 후학을 양성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콘텐츠'의 핵심은 스토리텔링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어떻게 전달하면 사람들에게 감동과 유익함을 주는지와 이를 기획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수진들은 저와 같은 PD 출신도 있고 TV, 인터넷, 게임, 광고, 출판, 영화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Q. <주철환> 하면, '젊음'이 떠오릅니다. 젊은 감각을 유지하는 상세한 비결이 궁금합니다.**

**A.** 제가 나이에 비해 젊어 보인다는 말을 많이 듣는데, 동안의 뿌리는 동심입니다. 어린아이의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제겐 편하고 좋습니다. 제가 매일 만나는 사람이 젊은이들입니다. 지난 주말에도 서른 살 된 제 아들, 그리고 아들의 친구들과 함께 부산으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 여행을 10년째 하고 있는데, 제겐 최고의 자랑거리입니다. 아들이 스무 살 때부터 서른 살까지 함께 여행할 수 있는 아빠가 될 수 있어서 뿌듯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파하고 싶습니다. 어른들이 젊은이들과 많이 대화하고 어울리며 베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셨고, 현재 대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신데 우리나라 교육의 방향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A.** 현재 우리의 교육 방향은 괜찮지만, 실천이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

다. 교육현장에 계신 선생님들과 가정의 부모님들이 실천해야 합니다.

지금은 국, 영, 수만 잘하면 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다재다능한 아이보다는 다정다감하고 친구들과 잘 어울릴 수 있는 아이로 키우는 것, 즉 인성이 중요합니다. 또 우리 아이가 무엇을 즐겁게 잘할 수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아이들의 적성을 알기 위해서는 '관찰'과 '대화'가 필요합니다. 제가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한 반에 70명 정도였는데 지금은 많아야 35명 정도라고 합니다. 당시보다 학생 수가 절반은 줄었으니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더 많이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선생님의 잡무를 과감하게 줄여줘야 합니다. 모두가 다 공부 잘하는 아이로 만들 수도 없고 만듦 필요도 없으며 자신의 적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적성을 발견하기 위해서 선생님과 부모의 관찰과 대화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사회 시스템과 제도도 보완되어야 할 것입니다.

**Q. 혹자는 '결핍이 성공을 만든다.'고 합니다. 지금의 <주철환> 교수님을 만든 것은 무엇입니까?**

**A.** 비유를 하자면 저는 엄마가 안 계시고 아빠가 부재한 환경에서 자라게 되어 역설적으로 내가 있었는데, 요즘 아이들은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어 (엄마와 아빠의 꿈이 투시되어) 내가 없다고들 합니다.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도 주인공 닐은 연기가 꿈이지만 부모는 의사가 되길 강요하고 결국 꿈을 이루지 못한 채 스스로 생을 마감했지요.

제게 엄마, 아빠를 대신한 분, 그분이 바로 고모님이셨습니다. 그분은 뚜렷한 교육관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용어로 말하자면, '자기 주도 학습'을 강조하셨는데, 제게 알아서 하라고 하셨습니다. '알아서 한다'는 것이 '네가 알아서 해, 내가 어떻게 일일이 다 챙겨주니'가 아니라, '난 널 믿는다, 넌 천재야'라고 늘 저를 과대평가하며 기를 살려주셨습니다. 고모님께서 소망과 희망을 깔아주신 덕분에 자신감을 갖고 지금까지 제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Q. 그동안 서적도 열여섯 권 출간하고 신문 칼럼도 정기적으로 이어오고 계시는데, <주철환> 교수님의 글은 음운을 맞추어 주제어를 정리하는 등 창의성이 돋보입니다. 글쓰기는 후천적인 노력에 의한 것이었나요?**

**A.** 라임 맞추기, 삼행시는 제 주특기죠. 제가 '성공의 조건'으로 언급한 쌍기역 돌림의 '꿈·끼·깡·꽤·꿀·끈'을 사람들이 많이 인용하는데, 제가 처음 쓴 말들입니다. '주체성을 가지고, 전문성을 가지고, 항상 자신감을 가져라.' 하고 길게 말하는 것보다는 '인생에서 필요한 것은 주전자라고 하는 것이 기억하기 좋고 효율적이죠.'

어린 시절 집에 책은 없었지만 라디오와 신문이 늘 제 곁에 있었습니다. 고모님이 작은 구멍가게를 하셨는데 물건을 '신문지'로 포장하셨습니다. 라디오를 듣고 '신문지'를 읽고 꾸준히 일기를 쓰며 문장을 배웠습니다. 초

등학교 4학년 때는 교내신문에 글을 투고했습니다. 이후 담임선생님께서 저에게 전교 백일장에 나가보라고 하셔서 교내 백일장에서 상도 받게 되고 문예반장도 했습니다. 중학교 1학년이 되자 국문과에 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국어교사를 하다가 PD를 했냐고 물어봅니다. 국어는 말하기, 읽기, 듣기, 쓰기로 이루어지고 언어는 정서와 사상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언어를 영상언어로 바꾼 겁니다. 제가 국어교사 마인드로 PD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제가 하고 싶고 잘할 수 있는 일을 즐겁게 해 왔습니다

**Q.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 직업이나 지위에 계신 적이 많습니까. 리더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 PD 자체가 리더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직업입니다. 미래를 예측하고 비전을 제시하고 사람들에게 호감과 신뢰를 줘야 합니다. 리더는 다가올 미래를 예측하고 비전을 제시하고 준비하도록 힘을 합치는 일의 중심이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믿음만한 사람이면서 함께 하면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Q. 언론중재위원회가 올해로 창립 3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향후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바라는 점이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한마디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중재위원회가 정의롭지 못하다거나 특정인의 편에서 있다는 말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고, 할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실이 왜곡되는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제가 만일 피해 당사자가 된다면 언론중재위원회로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행히 지금까지 제가 언론중재위원회까지 갈 일은 없었는데, 온라인 기사에 달린 댓글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게 됐고 해당 고교생으로부터 반성문을 받는 것으로 잘 마무리 한 적이 있습니다.

향후 "문턱이 높을 것 같다. 번거로울 것 같다. 이런 사안으로도 신청해도 될까?"라고 망설이는 국민에게 언론중재위원회에 오시면 당신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다고 사례를 중심으로 잘 알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진행 | 이진숙(홍보팀장) · 정리 및 사진 | 최은진(홍보팀 차장보)



## VR 저널리즘: '예언자 일보'가 인간세상에도 구현되다

〈해리포터〉에는 '예언자 일보'란 신문이 나온다. 마법 세계 언론인 '예언자 일보'는 읽는 신문이 아니다. 뉴스를 보여주는 신문이다. 보도하는 내용 자체가 바로 눈앞에서 펼쳐진다. 그래서 뉴스를 보는 사람은 스토리에 몰입할 수 있게 된다. 영화 속 얘기 같던 이런 장면이 요즘 현실에서도 구현되고 있다. 몇몇 언론들이 시도하고 있는 가상현실(VR) 저널리즘이 바로 그것이다.

VR 저널리즘은 특수 컴퓨터 촬영 기술이나 360도 카메라를 이용해 현장을 그대로 옮겨온 듯한 영상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뉴욕타임스는 지난해 중동이나 아프리카 지역 난민 이야기를 다룬 '난민(The Displaced)' 시리즈를 선보여 많은 호평을 받았다. 구글의 VR 시청용 도구인 카드 보드로 보면 현장에 가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CNN은 지난해 삼성 기어VR을 통해 민주당 대선후보 토론회를 VR 영상으로 중계했다. 해리포터 속 '예언자 일보'가 현실에서도 구현된 셈이다.

360도 카메라를 이용한 비교적 간단한 보도는 국내 언론들도 시도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잠실 롯데월드 123층 꼭대기에서 찍은 360도 영상으로 VR 저널리즘의 맛을 선사했다. 한국경제는 지난 해 서울 조계사에 은신했던 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경찰에 인계되는 과정을 360도 카메라 영상으로 전해줬다. 이 영상을 본 독자들은 마치 현장에서 직접 사건을 보는 것 같은 생생한 느낌을 받을 수 있었다.

왜 갑자기 VR 저널리즘에 관심을 보이는 걸까? 의외로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가까운 곳에서 찾을 수 있다. 수용자를 몰입시키겠다는 인류의 오랜 욕망이 바로 그것이다. 〈아라비안나이트〉에 젖줄을 대고 있는 '세예라자드

신드롬'은 수용자들을 이야기 속에 몰입시키겠다는 인간의 욕망이 얼마나 대단한지 잘 보여준다. 조앤 롤링이 '예언자 일보' 같은 설정을 한 것 역시 같은 차원에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다. 마법 세계라면 '예언자 일보' 같은 신문이 있을 것이란 상상은 인간의 본능을 잘 건드린 설정이었다.

실제로 1990년대 무렵부터 미국에선 몰입 저널리즘을 구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모바일 저널리스트 워크스테이션(MJW)을 비롯한 다양한 기기부터 2000년대 초중반 관심을 모았던 디지털 스토리 텔링 같은 것들도 따지고 보면 몰입 저널리즘을 위한 시도들이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에 VR 기술이 대중화되면서 한 단계 더 발전한 몰입 영상을 구현할 수 있게 됐다. 구글 카드 보드나 오쿨러스의 VR 기기 같은 것을 덕분이다. 여기에도 360도 촬영이 가능한 카메라도 속속 출시되면서 독자를 몰입시키는 VR 저널리즘이 관심의 초점으로 떠오르게 됐다. VR 기술은 독자들을 직접 현장 속으로 안내하는 것을 지향한다. 소식을 전해주는 대신 아예 직접 경험해 보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게 되면 VR과 저널리즘은 결코 생뿔맞은 조합은 아니란 걸 알 수 있다. 뉴스 속에 직접 개입하고픈 인간의 욕망을 잘 건드려 주기 위한 시도인 셈이다. 그래서 VR 저널리즘의 경쟁 포인트는 '현란한 기술'이 아니다. 독자들을 몰입시킬 수 있는 스토리 텔링이 핵심이다. 독자들에게 멀리 떨어진 곳에서 발생한 사건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 그것이 VR 저널리즘이 독자들에게 뉴스의 '오래된 미래'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최고의 선물이기 때문이다.

VIRTUAL  
REALITY



## 대법원 판결은 무죄, 여론재판은 유죄

소위 '전통미디어'라고 하는 신문, 방송 등과 달리 '인터넷'은 그 어느 미디어보다 이용자와 상호작용하는 미디어로서, '인터넷 뉴스콘텐츠'의 일부가 된 기사 댓글은 기사와 함께 상호작용해 독자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잘못된', '부정확한' 기사는 '잘못된', '부정확한' 댓글로 이어지게 마련이며, 이러한 기사와 댓글로 이루어진 '잘못된', '부정확한' 인터넷 뉴스콘텐츠는 당사자에게 커다란 피해를 주게 됩니다. 우리는 언론보도에 달린 악성 댓글로 고통을 받거나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종종 접하게 됩니다. 기사의 파급력에 더해 댓글이 피해를 증폭시키게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터넷 뉴스콘텐츠(기사+댓글)로 인한 피해의 회복은 동시에, 한자리에서 이루어져야 가장 신속하고 효과적일 것입니다.

보육교사인 A 씨는 3년 동안 법정다툼을 벌이며 억울함을 호소한 끝에 대법원에서 아동의 팔꿈치를 탈골 시킨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기사에 달린 악성 댓글로 인해 '아동 팔꿈치를 탈골 시킨 교사'로 비난을 받고 있고 향후 취업에 불이익을 받을까 염려된다며 언론중재위원회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몇 해 전 A 씨는 과잉행동을 하는 아동을 진정시키려 아동의 양팔을 잡아 2~3m 떨어진 의자에 앉혔는데, 이 과정에서 아동의 팔꿈치를 탈골 시킨 혐의로 재판에 받게 되었습니다. 재판은 3년 가까이 걸려 대법원까지 이어졌는데, 대법원은 'A 씨의 행동이 보육교사로서 통상 취할 수 있는 범주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의자에 앉힌 행동으로 아동의 팔꿈치 탈골이 발생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시켰습니다. 이듬해 파기환송심에서 A 씨의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언론사 기사에 대해 수많은 네티즌은 판결 결과를 '아이를 탈골 시키고도 교사가 무죄'라고 이해하고,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며 악성 댓글로 보육교사와 법원을 비난하고 조롱하였습니다. 해당 기사에 당사자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A 씨 주변 사람들은 이미 그 사건을 알고 있었기에 A 씨는 정작 법원에서 '무죄'를 받고도 오히려 '아동 팔꿈치를 탈골시킨 교사'로 낙인찍히게 되었으며 이는 A 씨에게 커다란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이후 A 씨는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기사 제목과 내용을 바로잡아달라며 정정보도 등을 구하는 조정신청을 하였고, 조정 과정에서 기사 제목을 변경하고, 법원의 판결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게 기사를 수정하는 것으로 언론사와 원만히 합의하였습니다. 또한 다행히도 (현행 '언론중재법'상 명시된 피해구제방법은 없어, 기사댓글로 인한 피해는 A 씨가 별도로 피해구제를 강구해야 하지만) 조정심리 과정에서 예외적으로 기사댓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 댓글을 삭제하는 선에서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소위 '전통미디어'라고 하는 신문, 방송 등과 달리 '인터넷'은 그 어느 미디어보다 이용자와 상호작용하는 미디어로서, 위 사례와 같이 '인터넷 뉴스콘텐츠'의 일부가 된 기사 댓글은 기사와 함께 상호작용해 독자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잘못된', '부정확한' 기사는 '잘못된', '부정확한' 댓글로 이어지게 마련이며, 이러한 기사와 댓글로 이루어진 '잘못된', '부정확한' 인터넷 뉴스콘텐츠는 당사자에게 커다란 피해를 주게 됩니다. 우리는 언론보도에 달린 악성 댓글로 고통을 받거나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종종 접하게 됩니다. 기사의 파급력에 더해 댓글이 피해를 증폭시키게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터넷 뉴스콘텐츠(기사+댓글)로 인한 피해의 회복은 동시에,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어야 가장 신속하고 효과적일 것입니다.

지난해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가 그 기사의 '댓글' 또는 기사와 동일한 내용이 인터넷에 확산되는 이른바 '핼글'로 인한 피해도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언론보도와 관련된 댓글 또는 핼글을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언론보도에 준하여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향후 언론중재법이 조속히 개정되어 언론보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제반 피해에 대해 구제 기관 및 구제 청구 절차를 달리할 필요 없이, 언론분쟁을 일회적, 유기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게 되길 기대합니다.

"아이 진정시키려 들었다가 팔꿈치 탈골...  
보육교사 '무죄'"

⋮

RE : 이제 아이들 팔 비틀기로 탈골돼도 괜찮으니  
보육교사들은 아이들 말 안 들으면 팔 비틀어  
빼서서 탈골 시켜도 됩니다. 맘껏 팔 잡아당기세요.



## 모차르트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 한밤의 정원에서, 아무도 모르게 —

소담스런 꽃향기가 황홀하게 퍼지는 봄밤의 정원은 생각만으로도 낭만적인 기분이 들게 한다. 거기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밀회라도 약속돼 있다면 그보다 더 짜릿한 순간은 없을 것이다. 어둡지만 결코 음산하거나 무섭지 않은 봄밤의 정원에서 이제 곧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일어날 거라고, 한번 지켜보라고 속삭이는 것 같은 서곡과 함께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은 시작된다.

모차르트가 1786년에 작곡한 이 오페라는 제목 그대로 피가로라는 인물의 결혼에 관한 이야기다. 주인공 피가도와 수잔나가 자신들 앞에 펼쳐진 모든 난관을 재치 있게 극복하고 결혼에 이르게 되는 과정이 파란만장하고도 희극적으로 펼쳐진다.

피가로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자신의 신혼방 치수를 재고 있다. 그의 사랑스러운 약혼녀 수잔나는 곁에서 결혼식에 쓸 베일을 손질하며 기쁨을 감추지 못한다. 두 사람은 행복에 겨워 사랑의 작은 이중창을 부른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수잔나에게 초야권(初夜權)을 행사하려는 그들의 주인, 백작의 흑심을 알아채고는 이내 착잡한 심정이 된다.

초야권(初夜權)이란 중세 유럽에서 봉건영주가 자신의 하인이나 영지 소작인들의 결혼 때 신랑보다 먼저 신부와 동침할 수 있었던 권리를 말하는데 이 황당한 권리는 모차르트 시대에도 이미 사문화된 귀족의 특권이었다. 그런데도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에서 피가도와 수잔나의 주인 알마비바 백작이 터무니없이 초야권을 들먹이고 있는 것은 당시 귀족들의 전횡과 횡포가 얼마나 심했는지를 상징하려는 장치다.

'피가로의 결혼'은 사실 오페라치고 많은 인물이 등장하는 데다 여러 사건이 얽혀 생각보다 이해가 어려운 작품으로 여겨질 수도 있지만, 이 모든 것을 하나로 이끌어 가는 힘은 바로 모차르트의 음악이다. 이 작품에서도 모차르트의 천재성은 유감없이 발휘되었다. 특유의 재기발랄하고 유쾌한 선율에 고전 시대 음악이 보여주는 균형미는 복잡한 인물 관계와 사건들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등장인물의 개성을 부각한다.

'피가로의 결혼'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도 이 오페라의 음악을 들어보면 익숙함에 고개를 끄덕이는 경우가 많다. 할리우드 영화 '쇼생크 탈출'에서 죄수인 주인공 앤디 듀프레인은 갑자기 전축을 크게 튼다. 그 음악이 창공을 가르며 날아오르는 한 마리 새처럼 교도소 안에 널리 울려 퍼질 때, 동료 수감자들의 어리둥절하면서도 경탄해 마지않는 표정은 이 영화의 백미 중 하나다. 회색 공간 안 죄수들의 탄성을 자아낸 음악, 교도소 담장 넘어 자유와 희망을 상징하는 듯 한 여성 이중창도 이 작품에 나오는 '편지의 이중창'이다.

'편지의 이중창'은 번심한 백작을 골탕 먹이고, 그의 마음을 되돌리기 위해 수잔나와 백작 부인이 음모를 꾸미면서 함께 부르는 아름다운 이중창이다. 같은 소프라노 배역이라도 하녀인 수잔나는 가볍고 밝은 음성의 소프라노 레제로(Soprano leggiero)가 맡고, 백작 부인은 좀 더 성숙하고 우아한 목소리의 리릭 소프라노(Lyric Soprano)가 맡아 배역의 특성을 살린다. 이처럼 오페라는 시각적인 요소뿐 아니라 가수의 음색만으로도 인물의 개성 표현이 가능하다. 피가도와 백작 역시 같은 바리톤이지만, 피가도에게는 소탈하고 서민적인 멜로디가 백작에게는 귀족적이고 중후한 멜로디를 줘 신분과 성격을 구분할 수 있도록 했다.

갖은 방해에도 불구하고 이뤄져 버린 피가로의 결혼에 낙담해 있던 백작은 유혹의 말을 담은 수잔나의 가짜 편지에 속아 희희낙락 밤의 정원에 나타난다. 수잔나를 오해한 새신랑 피가로도 분노를 불태우며 정원으로 온다. 밤이슬을 머금은 꽃나무들 사이에서 어리석은 남자들은 망신을 당하고 사랑하는 여자들에게 용서를 빌며 무릎을 꿇는다.

개인적인 취향이지만 항상 라일락 향기가 가득한 봄밤이면,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을 감상하고 싶다. 처음 이 오페라를 접했던 계절이 5월인 탓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작품의 주옥같은 음악들이 달콤한 미풍이 부는 봄날의 밤과 너무도 잘 어울리기 때문이다.



##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다



영어 관용어구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Everything happens for a reason.(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다)' 모든 발생한 것들에는 그것이 일어날 만한 원인이 있다는 것이지요. 중국에도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반드시 어떤 까닭이 있다'는 뜻의 필수곡절(必有曲折)입니다. 곡절은 굽고 꺾인 모습을 말하는 것이므로 이리저리 엮히고설킨 복잡한 사정이나 까닭을 뜻합니다. 인과응보(因果應報)도 비슷한 뜻으로 쓰입니다. 우리 속담에 '아니 댄 굴뚝에 연기 나라'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대충 같은 내용이라고 볼 수 있지요.

이런 표현들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현상만으로는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도, 하지도 말라는 뜻 아닌가 합니다.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겉모습이나 드러난 현상만으로 평가하지 말고, 그 이면에 있을지도 모를 숨겨진 사실이나 진실까지도 생각해보고 판단하라는 경구라고 생각합니다. 동서양을 구분하지 않고 이런 관용적 표현들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의 원인이 단발적이기보다는 복잡하고 누적된 요인들의 결과라는 것을 말해주려는 것일 겁니다. 거창하게 필연과 우연이

교차하면서, 상호작용을 하면서 발생한 역사적 사건을 예로 들 것도 없습니다. 자기 일이나 주변의 소소한 일들도 나중에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런 저런 사정과 이유가 얽혀서 일어난 것임을 알 수 있죠. 어떤 때는 처음 판단과 나중의 평가가 완전히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첫 판단대로 말하고 행동했다가 민망한 상황에 부닥치거나, 때론 속으로 뜨끔했던 적은 없나요.

20대 총선이 지나갔습니다. 언론을 포함해서 정치 전문가라고 칭하는 사람들의 예상이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정치부 기자로서 첫 총선 취재가 1992년 14대 선거였습니다. 3당 합당으로 213석을 유지했던 거대 여당 민주자유당이 149석을 얻었습니다. 2당인 민주당(97석)을 멀찌감치 따돌렸지만, 과반에는 1석 모자랐지요. 언론은 당시 정치 역학 구도를 고려해 민주당의 충격적인 패배라고 규정지었습니다. 이번 선거는 집권 여당이 과반은 물론이고 1당 자리마저 처음으로 빼앗겼으니 우리 정치사에서 사건은 사건입니다.

각 당 안팎에서, 여러 정치 전문가들이 서로 다른 시각으로 많은 분석과 진단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다 근거와 수치를 들이대며 하는 맞은 얘기일 겁니다. 하지만 막장 공천이니, 옥새니, 야권분열이니, 반사이익이니 하는 나름의 분석들이 결과를 단칼에 설명할 수 있을까요. '장님 코끼리 만지기 격'이라는 말이 있지요. 어떤 부위를 만지느냐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지는데, 장님 입장에서 보면 아주 틀린 게 아니고 거짓말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 거기까지만이지요. 전체적인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게 관조(觀照)라고 생각합니다. 국어사전에는 '고요한 마음으로 사물이나 현상을 관찰하거나 비추어 봄'이라고 풀이돼 있습니다. 중학교 국어 시간에 소설을 다룰 때 선생님이 전지적(全知的) 작가 시점을 '어항에서 노는 금붕어를 위에서 바라보는 시각'이라고 비유해서 설명한 것이 지금까지 기억납니다. 사물과 현상을 한 발 떨어져 두서너 계단 위에서 바라보는 시각 말입니다. 말하자면 상황을 객관화시켜 쿨하고 냉정하게 뜯어보는 거지요.

선거 결과를 놓고 나오는 민의, 심판, 반사이익 같은 평가들은 어찌 보면 추상적이고 허공으로 날려 보내는 수준의 얘기일지 모릅니다. 이런 결과가 나오기까지 누적된 그 무엇, 사회·문화의 변화, 정치의 품격, 나아가 우리들의 수준까지, 전체를 어항 속 금붕어 보듯 관조해볼 필요가 있지요.

엊그제 끝난 선거 얘기를 했지만, 사실 개인 각자에게는 자신과 주변의 일들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자신과 주변의 일에 대해 때때로 관조하면서 살펴보는 것은 상황 판단과 앞으로의 준비에 아주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일에는 이유가 있다, 그런데 단발성 이유라기보다는 누적된 그 무엇, 상호작용했던 그 무엇 등등이 겹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 그러니 나는 앞으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자신과 주변에 온갖 분석과 예상, 장담과 유혹이 얽혀 있는 지금, 정말 필요한 것은 관조가 아닌가 싶습니다.



## 촬영을 거절할 권리, 공표를 거절할 권리

A는 도매시장에서 신발을 파는 30대 후반의 미혼 여성이다. 어느 날 A는 방송국 PD로부터 “열심히 사는 사람들에 대해 찍으려고 하는데, 당신을 촬영해도 되겠나”라는 제의를 받았다고 한다. “긍정적인 내용이라서 얼굴도(모자이크 처리 없이) 그대로 나갈 거다”라는 설명도 들었다. A는 흔쾌히 인터뷰 등 촬영에 협조했는데, 방송을 보고는 깜짝 놀랐다.

너무 뜻밖에도 방송은 자녀의 배필을 직접 찾는 부모들에 대한 것이었고, 경제적 여유가 없는 부모는 자녀의 짝을 찾기도 어렵다는 내용이었다. A는 부모의 도움 없이 빠듯하게 사느라 결혼도 기약 없이 미룰 수밖에 없는 형편의 사람으로 편집됐다. A의 일에 대한 열정, 삶에 대한 자부심은 온데간데없었다. A의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 있었지만 얼굴 아래로는 그대로 노출되었고, 음성은 변조되지 않았기 때문에, A를 아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았다. 수화기 너머 A의 목소리는 격앙되어 있었다. “이런 내용이 줄 알았으면 애초에 제가 한다고 했겠어요? 이걸 우리 부모님께도 상처가 되는 방송이었어요.” A는 언론사에 계속 항의했지만, 언론사가 묵묵부답이어서, 결국 언론중재위원회에 전화하게 되었다고 했다.

그런데 아뿔싸, A가 언론사에 항의하는 사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조정 신청 기간이 지나 버린 것이다. 이런 경우는 정말이지 상담하는 사람 입장에서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꽤 상세히 법원 소송에 대해 안내를 했지만, A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도 어렵고 매일매일 장사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소송을 할 여유도 없다면, 한숨을 남긴 채 전화를 끊었다.

출연자의 동의가 아예 없는 경우도 문제이지만, 출연자의 동의가 있다 하더라도 이처럼 동의 범위를 벗어나서 보도되었다면 이것 역시도 문제가 된다. 동의 범위를 벗어난 보도로 인한 피해 사례는 꾸준한데, 얼마 전 언론중재위원회에서는 특별한 분야에 재능이 있다는 내용의 보도가 될

것이라는 신뢰를 주고 동의를 얻었음에도, 정작 방송은 조기교육의 폐해를 다룬 사안과 관련해서 손해배상 등에 합의하는 조정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법원 판결 중에는 언론사가 생기발랄한 대학 신입생 환영회 컨셉으로 취재하겠다고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공포의 통과리레’라는 제목으로 신입생 환영회의 부정적인 측면을 보도하여 손해배상을 명한 사례도 있다.

위의 사례들에서 보듯, 언론매체에 대하여 자신의 촬영 및 방송에 동의한 경우에도 ‘본인이 예상한 것과 다르게’ 보도가 된 경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권, 음성권 등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 초상권을 예로 들면, 초상권에는 촬영을 거절할 권리, 공표를 거절할 권리가 포함되는데, 설령 승낙을 얻고 촬영한 사진이라도 함부로 공표하면, 촬영거절권 침해는 되지 않을 수 있지만 공표거절권은 침해되어 결과적으로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 즉, 동의 당시의 초상권자가 신뢰한 범위를 벗어난 내용 및 방법으로 공표가 이루어졌다면, 초상권자의 공표거절권이 침해되는 것이다. 가령 촬영에는 동의를 얻은 언론사가 정말 완벽하게 모자이크 및 변조 처리를 하여 도저히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게 보도를 한다면, 이때는 보도 내용이나 방법이 동의권자의 예측 범위를 벗어났다고 해도 기본권 침해를 피할 여지가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당사자를 알아볼 수 있는지 여부는 일반 시청자(독자)가 아니라 보도 대상자의 지인이 알아볼 정도면 충분하기 때문에, 완벽하다고 생각한 모자이크 처리가 그렇지 못한 경우도 실제로 종종 있다.

그러므로 가장 안전한 방법은 당연하게도 취재 의도를 속이지 않는 것이다. 취재 의도를 속여서 협조를 구하거나 혹은 촬영 도중 방송 내용이 변경된 것을 알리지 않는 것은, 누군가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언론의 소명이 더 아름답고 바른 세상을 만드는 것이라면, 그 소명에 다다른 한 걸음 한 걸음도 진실 되고 무거워야 하는 게 아닐까.

## 기업 간 광고전쟁과 언론사의 책임



흔히 기업 간 경쟁을 총성 없는 전쟁에 비유하곤 한다. 매출액 기준 3조가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 우리나라 소주 시장 역시 마찬가지다. 업계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H사(‘O이슬’ 제조사)는 50%를 넘나드는 시장점유율에도 불구하고 경쟁사인 L사(‘처음O’ 제조사)와의 한판 전쟁을 불사했고 결국 승자로 이어졌다. 싸움의 발단은 ‘처음O’이 출시된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6년 당시 ‘처음O’은 세계 최초로 알칼리수로 제조되었다며 소주 원료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물의 차별성을 내세웠다. 이에 질세라 H사는 ‘O이슬’이 인공 알칼리수가 아닌, 천연 대나무 숲 알칼리수로 제조되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광고전을 펼쳤다. 한 치의 양보도 있을 수 없는 이 치열한 싸움에 뜻밖의 변수가 등장한다. 2007년 여름, K씨<sup>1)</sup>에 의해 ‘처음O’의 원료인 전기분해 환원수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아 유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처음O’ 출시 후 시장점유율이 줄곧 떨어지고 있던 H사로서는 호재가 아닐 수 없었고 K씨의 주장은 H사의 광고대행사를 통해 글과 동영상으로 제작되어 2008년 2월과 4월 사이 인터넷에 유포되었다. 이것이 H사와 L사 간에 벌어진 1차 광고전이다.

시간이 흘러 2012년이 되었다. 1차전의 시발점이 된 K씨가 다시 움직였고 한 방송사가 제보를 받아들여 그해 3월 5일 전기분해 환원수가 건강에 해로울 수 있고, 심하면 심장마비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내용<sup>2)</sup>으로 방송이 나갔다. 이 방송을 H사에서 놓칠 리 없었다. 그달 19일 H사 내에는 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졌고 방송을 영업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논의했다. 회의 결과는 지침으로 정리되어 영업팀 및 전국 영업지점에 조직적으로 하달되었다. 그 후 L사에 대한 부정적인 방송내용이 주류 도매상, 업주, 소비자 등에게 퍼져나갔음은 물론이다(2차 광고전).

2차 광고전 이후 L사는 H사와 더불어 해당 방송사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승소했다. 2016년 1월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방송사와 H사의 행위가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공동으로 손해배상금 33억 원을 지급하도록 명했다(2013가합16690). 이러한 판결 결과는 원·피고 모두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 사안의 핵심은 방송사의 보도행위와 H사의 조직적 영업행위가

‘공동불법행위’인지 여부다. 하나라고 볼 수 있는 행위에 다수가 참여하거나 관여한 경우, 그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참여자 혹은 관여자 전원이 공동으로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타당하다. 문제는 어디까지가 하나의 행위 인지인데 법원은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에는 공동불법행위자 상호 간 의사나 공통의 인식이 필요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각 행위에 관련 공동성이 있으면 된다”고 하여 다소 넓게 보고 있다. 그 결과, 방송사와 H사가 방송 제작이나 배포에 관해 서로 공모를 하거나 의견을 교환한 바 없었지만, 양사의 행위가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하나의 손해를 발생시켰기 때문에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이처럼 판례에서 채택하고 있는 공동불법행위 법리는 언론사로서 여간 부담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이번 사안처럼 의견 대립이 첨예한 경우 언론보도는 더욱 신중해야 한다. 보도행위가 끝난 후 제삼자에 의해 기사가 악용될 수 있기 때문인데, 이런 경우 언론사 역시 원인제공자로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언론사의 책임은 예측 가능한 범위를 넘어 확장될 여지가 많은 것이다. 개인적으로 취재 및 보도행위가 종료된 이후 제삼자에 의해 별도로 이루어진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위의 관련성이나 공동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하지만 더욱 근본적인 해결책은 저널리즘의 기본으로 돌아가 ‘진실 보도’를 지향하는 것이다. 사안의 성격상 특정 회사에 막대한 영업상 손실을 줄 수도 있는, 민감한 주제였다면 제보자의 주장 외에 추가적인 사실 확인을 위한 노력을 배가해야 했다. 엇질러진 물은 주워 담을 수 없듯 한 번 잘못 나간 기사는 언제고 또 다른 비수가 되어 누군가의 등을 찌를 수 있기 때문이다. 말과 글의 엄중함에 대해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1) 이전에 K씨는 ‘처음O’ 제조사에 사업을 제안했다가 거절당한 바 있다. 이후로 K씨는 ‘처음O’ 관련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했고, 허위사실 유포 등을 이유로 형사처벌까지도 받았다.

2) 해당 방송은 허위였을 뿐만 아니라 K씨의 주장만을 토대로 한, 사실 확인 과정이 미흡한 보도였다. 법원은 방송 내용이 진실성 및 상당성 모두를 결여했다고 보았다.

# 슬픔을 승화하는 안달루시아 축제

스페인 그라나다 여행

이해준 기자는 <헤럴드경제> 문화부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1년 10월 한국을 출발해 2012년 7월까지 가족과 함께 아시아에서 유럽-남미-북미로 '희망찾기 세계일주'를 펼쳤다. 현재는 <헤럴드경제> 정치부 선임기자로 일하고 있다.

## 이런 애수를 자극하는 안달루시아

이베리아 반도의 최남단 스페인 안달루시아의 그라나다엔 무언가 애수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슬픈 역사를 간직한 알함브라 궁전이나 그 건너편의 사크로몬테 언덕, 스페인의 민족 시인으로 1930년대 극우주의자들에 의해 살해된 페데리코 가르시아 로르카 기념관까지 모두 애수를 자극한다. 끊어질 듯한 선율로 애잔함을 주는 타레가의 기타 연주곡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은 이런 정서를 각인한 세계적인 명곡이다. 심지어 작렬하는 태양과 빠르고 현란한 플라멩코, 투우에조차 아련한 슬픔이 녹아 있다.

하지만 그라나다엔 애수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우리의 삶 밑바닥에 있는 근원적인 아픔과 상처를 승화시키는 축제가 있었다. 아주 요란하지도 않고, 요즘 한국의 각 지방에서 벌어지는 축제처럼 소비주의 또는 상업주의에 물든 축제도 아니었다. 때로는 장엄하고, 숙연한 느낌마저 주지만, 주민과 공동체가 함께하면서 삶에 활력을 되찾게 하는 축제였다. 필자 가족도 그 축제 행렬을 지켜보며 슬픔을 넘어서는 축제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길 수 있었다.

그라나다의 대표적인 볼거리는 유럽에 남아 있는 대표적 이슬람 궁전인 알함브라 궁전이지만, 그보다 앞서 돌아보아야 할 곳이 있다. 알함브라 건너편 옛 이슬람 거주지역인 알바이신과 새크라멘토 지역이다.

알바이신은 과거 이슬람 거주 지역으로 아직도 그 유적들이 남아 있다. 하얀 회벽과 적갈색의 지붕이 파란 하늘과 잘 어울리고, 이슬람의 목욕탕 시설인 하맘 유적, 이슬람식 정원이 색다른 정취를 자아낸다. 알바이신 전망대에 오르면 계곡 건너편 알함브라 궁

전과 일대의 구시가지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다.

고대 로마 시대부터 변영을 누렸던 그라나다는 유럽에서 가장 늦게까지 이슬람의 통치를 받았던 곳이다. 8세기 초부터 이베리아 반도를 장악한 이슬람은 스페인의 국토회복운동인 레콘키스타(Reconquista)에 밀려 1492년 최종적으로 패퇴할 때까지 그라나다를 근거지로 삼아 마지막 전투를 치렀다.

알함브라 위쪽에 '성스러운 산'이라는 의미의 사크로몬테가 있다. 이슬람 세력이 기독교 군대와 최후의 전투를 벌이면서, 흰 벽과 골목을 온통 붉은 피로 물들인 곳이다. 당시 이슬람 세력은 패색이 짙어지자 항전할 것인지, 항복할 것인지를 놓고 격론을 벌이다 항전을 택했다. 그들은 건너편의 알함브라를 바라보며 눈물과 피를 뿌리며 마지막 절망적인 전투를 치렀다고 한다.

이 지역은 이후 한동안 폐허로 방치되다 집시들이 들어와 거주하면서 독특한 문화를 형성했고, 지금도 예술인들이 많이 살고 있다. 집시들은 고대 로마 시대에 만들어진 동굴 주거지에 들어가 살았다. 지금도 산비탈을 따라 구불구불 이어진 골목에 하얀색 외관의 옛 동굴 유적들이 남아 있다.

## 유럽 최고의 이슬람 궁전 알함브라

2000년대 이후 그라나다가 유럽 최고의 관광지로 부상한 것은 알함브라 궁전 때문이다. 워낙 인기가 높아 티켓 예약제를 시행할 정도다. 예약이 어려운 관람객을 위해 일정 수의 티켓을 새벽에 현장에서 발매한다. 우리도 그라나다에 도착하자마자 예약을 시도했으나 이미 티



알함브라 궁전. 유럽에 남아 있는 대표적인 이슬람 궁전으로 유럽 최고의 관광지로 인기를 끌고 있다.



알함브라 궁전에 만들어진 연못. 곳곳에 물길을 내 온도나 습도를 조절하도록 하고 있다.

켓이 바다나 셋째 날 새벽에 티켓 발매소로 달려가 한참 기다린 끝에 오후 입장권을 살 수 있었다.

알함브라는 파리의 베르사유나 빈의 쉐부른 같은 유럽 궁전들과 확실히 달랐다. 유럽의 궁전들이 웅장하고 화려한 건축물과 넓은 정원으로 위압적인 느낌을 주는 반면, 알함브라는 아기자기한 공간 구성이 놀라움을 주었다. 특히 바람과 물, 건물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도록 했고, 궁전 곳곳에 연못과 물길을 만들어 한여름에도 시원한 느낌을 주도록 했다. 전통적인 이슬람 양식이다.

여기에도 슬픈 이야기가 전해진다. 이곳의 마지막 이슬람 왕조인 나스르의 보아브달이 기독교 세력에 알함브라 궁전을 내주고 도주하다 되돌아보며 궁전의 아름다움에 눈물을 흘렸다는 이야기다. 종교나 정치적 입장을 떠나 아련함을 자극한다. 이때가 1492년으로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면서 '대항해 시대'를 열었다. 그라나다가 역사적 분기점의 중심이었던 셈이다.

궁전은 메수아르, 코마레스, 라이온 궁 등 여러 영역으로 나뉘어 있지만, 거의 붙어 있어 언뜻 구분하기가 어려웠다. 그중에서도 왕의 집 무실 옆에 마련된 기도실이 흥미로웠다. 기도실에 서니 계곡 건너로 알바이신과 사크로몬테 언덕이 한눈에 들어왔다. 서민 주거지를 바라보며 명상에 잠겼을 이슬람의 왕처럼 우리도 건너편의 슬프도록 아름다운 언덕을 아련하게 내다보았다.

### 슬픔을 승화하는 안달루시아 축제

우리 가족이 그라나다를 여행할 때에는 마침 부활절을 맞아 스페인 최대 축제의 하나인 안달루시아 축제가 진행되고 있었다. 축제는 일주일 동안 해가 넘어가는 저녁부터 시작해 한밤중~새벽까지 진행되었다. 4월인데도 '시에스타'로 3~4시간의 긴 점심 겸 휴식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한낮의 거리엔 적막감이 감돌았다. 하지만 해가 기울면서 거리가 활기를 찾기 시작해 석양이 질 때부터 축제 열기가 달아올랐다. 우리도 처음엔 어리둥절했지만, 점차 익숙해졌다.

축제는 각 성당이 고난에 처한 예수나 비탄에 빠진 성모 마리아의 상을 앞세우고 그라나다 구시가지 중심의 카테드랄까지 행진한 다음, 다시 교회로 돌아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각 성당은 장중한 음악을 연주하는 악단과 함께, 사제들은 각 교구가 지닌 보물을 꺼내 들고, 신도들은 검은 고깔모자를 쓰는 등 특이한 복장을 하고 행진에 참가했다. 행렬이 장엄하고 숙연한 느낌까지 주었지만, 그렇다고 엄숙한 것은 아니었다. 흥분과 숙연함이 묘하게 공존했다.

성당별로 행진 날짜와 시간, 코스도 모두 정해져 있는데, 대부분 행렬이 오후 9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카테드랄에 도착하도록 배치되어 있다. 일주일 동안 매일 저녁~밤에 행렬이 들어오기 때문에, 축제도



안달루시아 축제 행렬. 한밤중에 성모 마리아 상을 앞세운 행렬이 그라나다 시내를 지나고 시민들이 이를 즐기고 있다.

일주일 내내 진행되는 것이다. 가까이 있는 성당은 행진 거리가 짧아 오후 늦게 출발해도 되지만, 거리가 먼 경우 거의 온 종일 이동해야 한다. 하지만 성당의 사제들과 지역의 신도들 및 공동체가 함께 참여해 준비하고 즐기는 것이었다.

거리를 가득 메운 시민들은 행렬을 차분하게 지켜보았다. 어른은 물론 어린이, 청소년들, 심지어 휠체어의 노인까지 거리로 나와 축제를 즐겼다. 자신이 속한 교회의 행렬이 지나갈 때는 환호하면서 응원을 보내기도 했다.

축제는 자정을 넘기면서 최고조에 달했다. 저녁을 먹고 아이들과 손을 잡고 참여하는 가족들도 많았다. 낮에 시에스타로 쉴 수 있으니 새벽까지 즐길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묵은 호스텔 여주인은 "새벽 4~5시까지 계속돼요. 모두 제정신이 아니에요. 축제에 미쳤어요 (crazy). 호호호." 하고 활짝 웃었다.

이 축제야말로 인간 정서의 저 밑바닥에 깔린 슬픔과 애수를 달래 주고, 현실의 어려움을 승화시키는 제의요, 기원이었다. 그라나다 곳곳에 어린 예수도 그 축제의 열기에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원래 축제란 이런 것 아닌가. 비록 지금의 삶이 어렵더라도, 경제위기가 몰아치더라도, 그게 세상의 끝이 아니지 않은가. 위기가 오더라도 삶은 지속하여야 하고, 축제도 계속되어야 한다고 소리 없이 외치는 것 같았다. 그들은 부활한 예수, 절제된 슬픔에 잠긴 성모 마리아상을 메고 가면서 새로운 부활의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시민들이 모두 참여하는 이러한 축제의 전통을 유지하는 나라가 행복한 나라가 아닐까. 삶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절망하기보다는 함께 준비하고 참여하는 축제를 통해 활력을 얻는 것, 이것이야말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발견한 삶의 지혜가 아닐까. 경제가 나아져도 이런 전통을 잃는 사회는 그만큼 삶의 지혜를 잃는 것이다. 안달루시아 축제는 슬픔을 새 삶으로의 부활로 승화시키는 공동체적 제의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여정이었다.

## COMMISSIONERS 위원동정

### • 제2회 미디어&매스커뮤니케이션 국제컨퍼런스 참석

위원회 중재위원이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제2회 미디어&매스커뮤니케이션 국제컨퍼런스에 참석했다. 4월 21일(목)~4월 22일(금)에 진행된 이번 컨퍼런스는 <기술이 미디어와 인간의 소통 방식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개최되었으며, 위원회에서는 이태수 중재부장(서울제4중재부), 박종렬 중재위원(서울제7중재부), 김동규 중재위원(서울제8중재부)이 참석했다.



• 유세경 위원(서울제3중재부,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 미디어학부 교수)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제3기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됐다.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는 미디어 매체나 사업자의 영향력을 과학적·객관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2010년 출범했으며, 미디어·사회조사분석·시장경쟁 분야의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다. 제3기 위원회는 2019년 1월 31일까지 활동한다.

## NEWS 위원회 소식

### 2016년도 제1차 갈등해결과정 연수 실시

위원회는 제1차 일반 갈등해결 역량강화 과정 연수를 4월 25일(월), 4월 27일(수), 4월 29일(금) 3일간 진행했다. 이번 일반 과정은 법원 소송외의 분쟁해결 방법인 ADR과 효과적인 갈등조정 커뮤니케이션 기법 등의 과목으로 구성되었으며, 30명이 참여했다.

한편 5월 10일(화)과 5월 12일(목)에는 제2차 심화 과정이, 5월 17일(화)에는 제3차 심화 과정이 진행되며, 심화 과정에서는 갈등조정 커뮤니케이션 기법을 실습을 통해 익히고, 언론조정중재사례를 통한 분쟁조정기법 노하우와 더불어 갈등해결 기법의 하나인 퍼실리테이션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진다.

### '2015년도 언론조정중재·시장권고사례집, E-BOOK 발간

4월 30일, 위원회가 작년 한 해 동안 접수 처리한 주요 조정·



중재신청 사례와 시장권고 현황 등을 수록한 「2015년도 언론조정중재·시장권고사례집」이 발간됐다. 사례집은 전자책(E-BOOK)으로 제작됐으며, 위원회 홈페이지(www.pac.or.kr) 정보자료실 코너에서 열람할 수 있다.



## 사무처 직원 대상 인문소양 특강

최재천 국립생태원 초대원장(이화여대 예과과학부 석좌교수)이 4월 18일(월) 위원회를 방문하여 위원회 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특강을 했다. 최재천 원장은 서울대 생물학과 교수, 환경운동연합 공동 대표, 한국생태학회 회장 등을 지냈으며, 과학의 대중화에 앞장서는 세계적인 진화생물학자이다. 이날 특강은 <통섭적 삶과 거품 예찬>을 주제로 개최되었으며, 자연과학적 관찰과 인문학적 성찰이 함께한 시간이었다.

최재천 원장이 말하는 통섭적 삶이란 자연의 일부가 되어 더불어 사는 삶의 태도로, 자연은 지극히 낭비의 삶을 선택했고 이러한 거품이 진화를 이루어낸 원동력인데, 유독 인간 사회에서는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교육 분야에까지 '시장 논리'를 들이대고 있다며 "넘쳐야 흐른다"고 설명했다. 또 최재천 원장은 생명공학의 발달, 환경오염 등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지구에서 모두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지구를 공유하고 사는 다른 모든 생물들과 공생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의사실 단정 보도, 추후보도  
및 손해배상으로 조정성립

01

A 방송은 경기도의 한 영어유치원 교사인 신청인들이 CCTV 사각지대에서 원생들을 체벌하고 학대해 경찰이 수사 중이라는 내용을 5회에 걸쳐 보도하면서 해당 유치원 건물의 내·외부 모습 및 관련 CCTV 영상을 모자이크 처리 없이 함께 방영했다. 이에 신청인들은 해당 혐의에 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이 사건 보도는 CCTV 영상을 편집하여 실제 학대 행위가 발생한 것처럼 왜곡된 인상을 주었고 피의사실이 일방적이고 단정적으로 보도되어 피해를 입었다며 추후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심리결과, 중재부는 피의사실을 보도할 때 더욱 공정하고 엄격하며 신중한 취재가 요구될 것인데, 이 사건 보도의 전체적인 인상은 신청인들의 피의사실이 매우 단정적으로 보도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인정, 추후보도 및 손해배상 지급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배상액에 관한 양 당사자 간 협의를 거쳐 추후보도와 함께 손해배상 85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됐다.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한  
초상권 침해 보도, 기사수정  
및 손해배상 책임 인정

02

B 신문은 대학로에서 벌어지는 공연 호객행위를 보도하면서 전단을 배포하고 있는 신청인의 초상을 동의 없이 촬영, 보도하였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대학로에서 불법 호객행위를 한 적이 없고, 단지 공연 소개를 위해 전단을 배포했을 뿐인데, 모자이크 처리도 없이 초상이 공개되어 배우가 꿈인 신청인의 이미지가 훼손되었고, 초상권도 침해당했다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청구했다.

B 신문은 신청인의 얼굴이 가려져 있어 당사자임을 식별할 수 없고, 설사 초상권 침해가 인정된다고 해도 공익적인 목적으로 보도했기 때문에 신청인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심리결과, 중재부는 해당 보도는 신청인의 얼굴이 행인에 의해 가려져 있기는 하지만, 신청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헤어스타일, 의복 등이 노출되었고, 피신청인은 모자이크 처리도 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보도의 공익상 이익이 중대하다고 하더라도 굳이 신청인을 촬영, 보도하여야 할 필연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중재부는 해당 사진을 모자이크 처리하고, 손해배상금 150만 원을 지급하라며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고, 양 당사자가 동의하여 이 결정은 확정됐다.

수감 중인 당사자,  
변호사 조력제도 이용하여  
정정보도로 합의

03

C 방송사는 중국 관영 통신사인 신화통신의 보도에 근거하여, 국내에서 토막 살인을 저질러 복역중인 신청인이 19년 전 중국에서도 같은 수법의 살인을 저질렀고 중국 공안으로부터 중국 토막살인 사건의 용의자라는 사실을 확인받았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신청인은 19년 전 중국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은 신청인과 무관하고 신청인은 중국 공안으로부터 이 사건의 용의자로 확인받은 바 없다며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중재부는 C 방송사가 신화통신의 보도에 근거하였지만 실제 보도에서는 인용보도 형식을 취하지 않은 점, C 방송사가 신화통신 보도 이외에 별도의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정정보도를 게재하도록 권유했다. 이에 양 당사자는 중재부의 권유를 수용하여 조정이 성립됐다. 이 사례는 수감 중인 신청인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조정절차를 이용한 경우에 해당하는데, 위원회는 2012년 「언론조정 및 중재절차에서의 변호사의 조력에 관한 세칙」을 마련하여, 당사자가 조정중재절차를 이용하면서 출석 및 진술 등이 곤란할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감블로그 속 『**언론** **사랑**』 4월호 100자평

하승년 님

『**언론** **사랑**』이라는 잡지를 이번에 처음 접했습니다. 각 지면의 글 하나하나가 아주 유익했습니다. 그리고 언론중재위원회 창립 35주년을 축하드립니다. 베르디의 리골레토가 그러한 사연이 있는 오페라인 줄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언론** **사랑**』 잘 읽었습니다.

정숙경 님

인터뷰 지면에서 조용구 사법연수원장님을 만나 뵈 수 있어서 기뻐했습니다. 코미디언인 코난 오브라이언이 2011년 다투머스 대학 졸업식에서 연설한 내용을 소개해주셨죠. 마음 깊은 곳에서 잔잔한 여운이 일어납니다. 귀하고 소중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 역시 마음을 다잡으려 담담하게 나아가려 합니다.

윤지선 님

이번 호에는 <로봇 저널리즘> 기사가 눈에 띄네요. 최근 구글의 인공지능 알파고와 이세돌 9단의 대국 때문인지 로봇기술이 어디까지 발전해왔는지 관심이 많았는데 저널리즘 분야에서도 로봇기술이 적용될 수 있다는 데 놀랐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 공감블로그(<http://pacblog.kr>) 『**언론** **사랑**』 5월호 발간 이벤트 페이지에서 소감이나 의견을 5월 20일(금)까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공감되는 100자평을 남겨주시는 분 중 3명을 선정하여 모바일 기프트콘(2만원 상당)을 드립니다.

언론중재위원회 학술지

# 미디어와 인격권 제2권

## 일반 연구논문 공모

언론중재위원회는 지난 2015년 <미디어와 인격권>을 창간, 디지털시대 언론피해구제제도의 개선방향을 다룬 기획논문 등 총 8편의 논문을 게재한 바 있습니다. 위원회는 <미디어와 인격권> 제2권에 수록할 일반 연구논문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열정 있는 연구자들의 많은 관심과 투고를 부탁드립니다.



**연구주제** 표현의 자유, 인격권, 언론윤리, 미디어법제 등 <미디어와 인격권>의 발행 목적에 부합하는 주제

**응모자격** 언론학 및 법학 관련 학회 회원, 관련분야의 전문가자격증 소지자 및 종사자로서 해당 분야 전문성이 인정되는 자

**원고마감** 2016년 8월 16일(화)

**원고분량** 200자 원고지 150매 내외(최대 180매)

**논문접수** 이메일 접수(journal@pac.or.kr)

※『미디어와 인격권』에 게재가 최종 확정된 논문은 원고료(2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언론중재위원회 홈페이지(www.pac.or.kr)를 참조하시거나 언론중재위원회 연구팀(02)397-3042로 문의 바랍니다.